

적조 재난 위기 경보 단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한다

- 남해안 해역의 적조 소강상태 유지로 적조 주의보 및 예비특보 전면 해제
- 적조 재난 위기 경보 단계 10월까지 '관심'으로 유지, 예찰 등 지속 관리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9월 17일(목) 16시부로 적조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수산물과학원이 9월 초순부터 적조가 소강상태를 유지함에 따라 같은 날 14시를 기해 남해안 연안해역에 내려진 적조 주의보와 예비특보를 모두 해제 발표함에 따른 것이다.

* 관심(7~10월) → 주의(≥예비특보 2개 해역) → 경계(≥주의보 2개 해역) → 심각(≥경보 2개 해역)

** 예비특보(≥10개체/㎖) → 주의보(≥100개체/㎖) → 경보(≥1,000개체/㎖)

해양수산부는 적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하향 발령했지만, 10월까지의 매주 2회 이상 정기 예찰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적조생물 발생 추이 등을 분석하는 등 상황 관리를 유지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적조가 확산되지 않고 소강 상태이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방정부와 함께 확산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양식장 사전점검 등도 실시하겠다.”라며, “어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수온이 떨어지는 10월까지의 경각심을 유지하며 어장 관리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51-773-5610)
		담당자	사무관	김 환 (051-773-5392)
	국립수산물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책임자	사무관	이나현 (051-773-5622)
		책임자	과 장	한인성 (051-720-2210)
	국립수산물과학원 수산재해대응팀	책임자	팀 장	김형철 (051-720-2750)
		담당자	연구사	박태규 (051-720-2751)
			연구사	이장원 (051-720-2753)

<국립수산물과학원>

적조 특보 발표 해역도 (2026년 9월 17일)

